

#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Monthly Newsletter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우먼 인 더 보드룸」 외 3월 동향

2024.03

#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8<sup>th</sup> edition」

## 우먼 인 더 보드룸: 글로벌 관점, 제8판

▶ 『우먼 인 더 보드룸: 글로벌 관점』 제8판 보고서는 '23년 3월, 50개국 18,000개 이상 기업, 206,000개 이상 이사직 데이터를 분석하여 글로벌 이사회 여성비율과 성 다양성 관련 정치·사회·법적동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

▶ 글로벌 50개국 이사회 성평등(Gender Parity)\* 현황

\*남녀평등을 지수로 나타내는 용어로 남녀동수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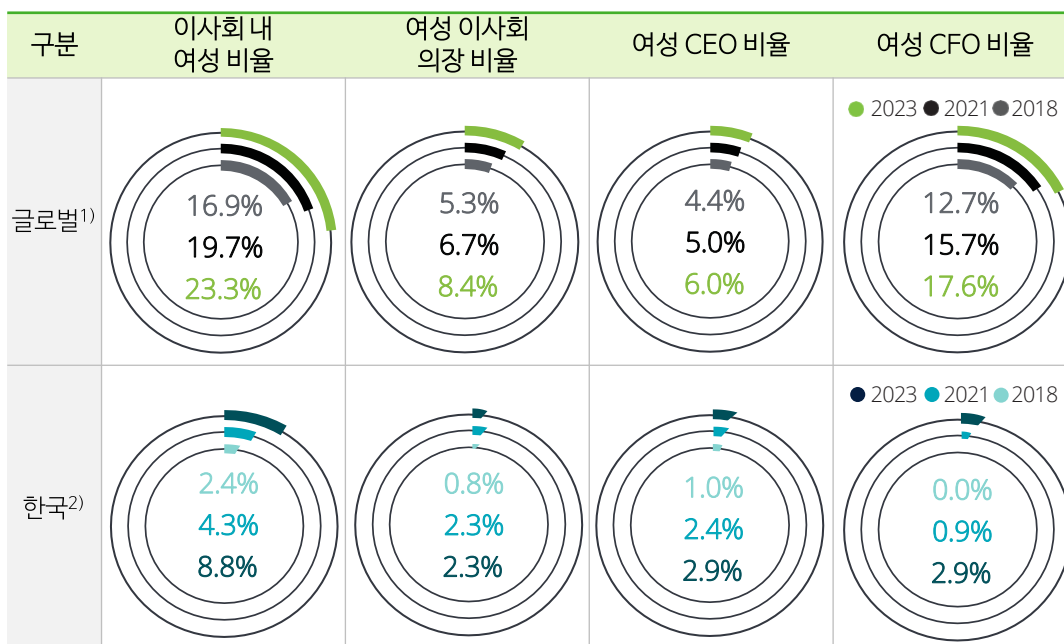
- '23년 글로벌 이사회 내 여성비율은 작년 대비 3% 증가에 그친 23.3%에 불과하며, 성평등 노력은 진전되었으나 더 큰 추진력 없이는 2038년 내 성평등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3년 글로벌 여성 이사회 의장 비율은 8.4%, 여성 CEO 비율은 6%에 불과하여 현 속도라면 이사회 의장 및 CEO 직책의 성평등은 각각 2073년, 2111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이사회 성평등(Gender Parity) 현황

- '23년 이사회 여성비율은 약 9%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50개국 중 최하위 5개국에 속함
-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국내 상장사는 이사회를 단일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향후 한국에서도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이사회 다양성 확대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이사회 효과성과 회계투명성 제고가 기대됨

▶ 주요 서베이 결과 비교 (글로벌 VS 한국)

• 이사회 & 최고경영진 내 여성비율



다운로드



QR 코드



1) 글로벌 50개국의 총 18,085개사를 분석하였으며, 이사회 내 여성이사 수는 18,532명임  
2) 총 461개사를 분석하였으며, 이사회 내 여성이사 수는 253명임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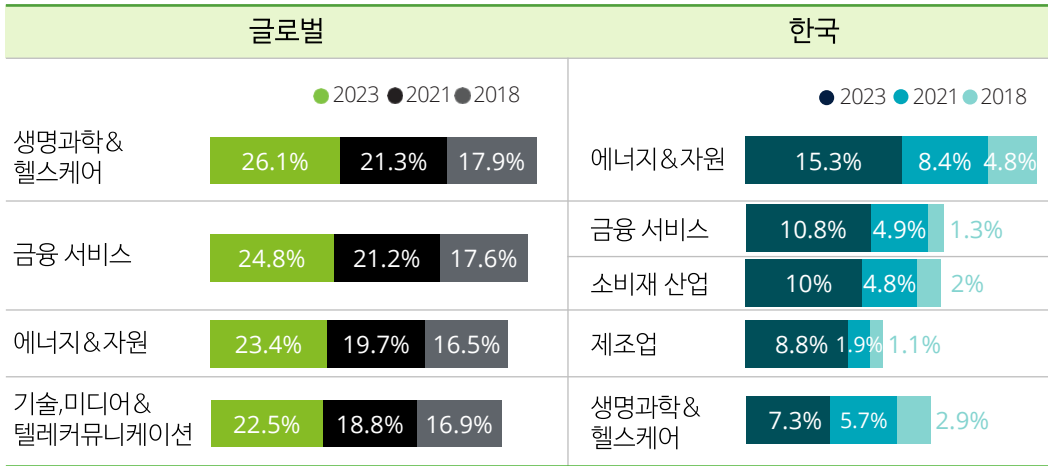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8<sup>th</sup> edition」

## 우먼 인 더 보드룸: 글로벌 관점, 제8판

### ➤ 주요 서베이 결과 비교 (글로벌 VS 한국) (계속)

- 이사회 & 최고 경영진 내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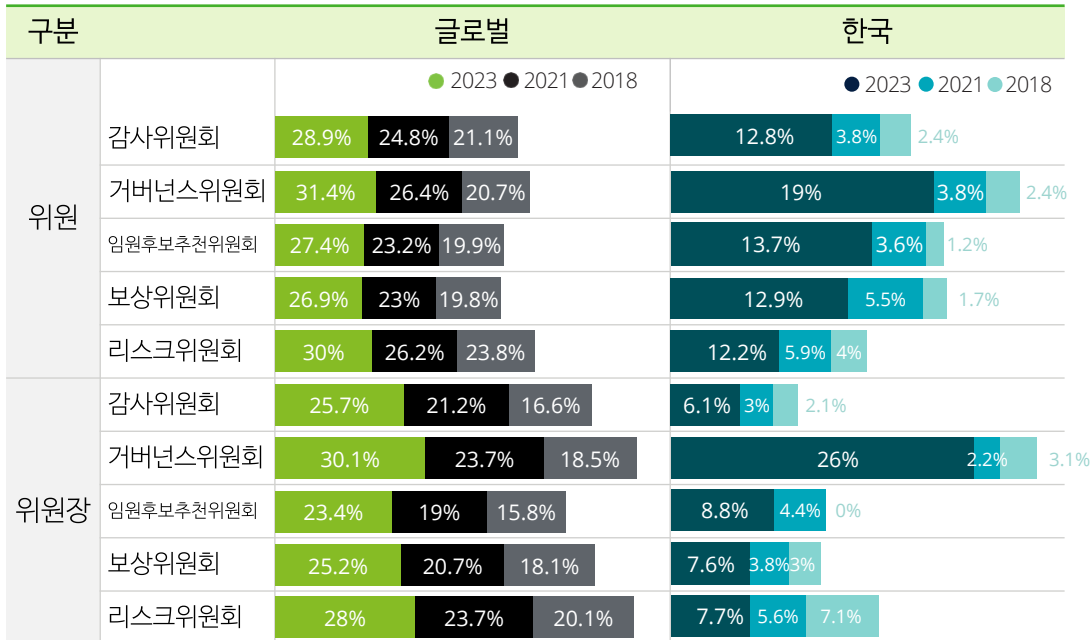
다운로드



QR 코드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여성 비율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Deloitte Internal audit megatrends, 「2024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 Insights and Actions」

## 2024년 NEW 국제내부감사표준(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공개

▶ 세계내부감사인협회(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이하 'IIA')는 '24년 1월 9일 개정된 국제내부감사표준을 발표함

- 지난 2017년에 발표된 국제내부감사표준은 1년간의 전환기간 동안 사용이 승인된 상태로 유지되며, 2025년 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조기도입을 권장함
- 새로운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내부감사 기능의 기준을 높이고 내부감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IIA는 본 표준 발표의 일환으로 '글로벌 내부감사 표준에 대한 표준 설정 및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함

다운로드



QR 코드



### 1. 원칙에 기반한 15개의 기본원칙 및 5개 영역으로 구성

- 효과적인 내부감사를 위한 15개 지침 원칙과 5개 영역의 원칙 기반의 구조로 구성되며 각 원칙은 필수요건을 포함하는 표준으로 뒷받침되고 각 표준은 이행시 고려사항과 준수 증거의 예시를 통해 뒷받침되며 고려사항과 예시는 단순 체크리스트로 간주되어서는 안됨

### 2. 영역 III: 내부감사인이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더 나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내부감사에 필수적인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활동("필수조건")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의견 불일치의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용어가 포함됨
- 표준 6.3에서는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 지원은 내부감사 기능을 지지하고 조직 전체에서 해당 기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중요성을 강조함

### 3. 내부감사 전략 개발: 표준 9.2 내부감사 개발 전략

- 최고내부감사책임자(CAE)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성공을 지원하고 이사회, 고위경영진 및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내부감사 기능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함
- 내부감사 전략에는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비전, 전략적 목표 및 지원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야 하며, CAE는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과 함께 내부감사 전략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 4. 표준 8.4 외부 품질평가(EAQ) 추가 요구 사항

- EAQ 수행팀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유효한 CIA(Certified Internal Auditor)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신규 요구사항이 포함됨

### 5. 표준 10.3 기술자원 내부감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

- CAE는 내부감사 기능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 구현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술적 제한이 내부감사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함

### 6. 표준 14.3 내부감사 결과 평가 및 표준 14.5 결론은 결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 CAE는 개별 감사 결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사 결론을 제시하는 방법론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CAE가 내부감사 보고를 조직 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판단으로 인정하는 것임

### 7. 표준은 내부감사 및 자문서비스 수행에 모두 적용

- 자문 서비스 수행에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역 V에 내부감사 서비스 수행의 개별 표준 내에 언어가 포함하고 자문 서비스의 성격과 목표가 다양하여 이러한 유형의 업무를 실행하는 데 추가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공함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On the board's agenda, 「Living in “interesting” times: The 2024 board agenda」

## 흥미로운 거버넌스의 시대: 2024년 이사회 아젠다

- 2024년은 거버넌스가 더욱 흥미로워질 시기로 전망되는데, 이는 현재 전세계가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 변동성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문제와 맞서고 있으며 기술 및 기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발전은 계속해서 수많은 새로운 기회와 위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
- 주목할 위험과 기회

구분	내용
지정학적 격변과 경제적 불확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자본흐름과 해외투자에 영향을 미침</li> <li>• 이는 장기 과제인 기후변화와도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거시적 리스크가 다양한 시기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 수익률이 낮은 사업을 매각·구조조정, 인력감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li> </ul>
규제조사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변경 및 컴플라이언스 보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은 효과적인 이사회 감독의 기초임</li> </ul>
사이버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보안 감독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최우선 순위로 지목한 안건임</li> <l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법인의 사이버보안 위험 프로세스와 세부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함</li> </ul>
생성형 인공지능 (Gen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버넌스 프로세스, 규정, 기준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이사회 감독의 지속적인 과제임</li> </ul>
데이터 변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개선부터 고객확보전략까지, 기업들은 오랫동안 '빅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해 왔으며 '24년 이후에는 빅데이터가 Gen AI와 같은 신기술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더 많은 기업이 기술과 데이터 사용을 통합할 것임</li> </ul>

- 이사회 효과성을 위한 전략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가 보고받는 정보의 품질 및 적시성 향상</li> <li>•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 아젠다를 재구성</li> <li>• 개별이사 평가를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이사회 및 위원회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권고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 수행</li> <li>• 이사회 감독의 대규모 이사 승계계획 전략의 일환으로 Gen AI 및 이와 유사한 신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li> <li>• 신입 이사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이사 온보딩(onboarding) 제공</li> <li>• 이사가 의미 있는 질문을 제기 및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 비즈니스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li> </ul>

다운로드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US  
Living in "interesting" times  
The 2024 board agenda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3.7 (목) 금융감독원

### '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 ▶ 금융감독원은 '23년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 전수를 대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 상장시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남
- ▶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 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도 개선되었으나, 공시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됨
- ▶ 물적분할 및 투자자보호 제도 개요

구분	내용
물적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母)가 분할된 신설회사(子)의 주식을 100%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주주는 존속회사(母)를 통해 신설회사(子)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li> </ul> </li> </ul>
투자자보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으로 ① 공시 강화('22.10월), ② 주식매수청구권 도입('22.12월), ③ 상장심사 강화('22.9월) 제도 시행</li> </ul>

- ▶ 투자자보호 제도 현황 점검결과

구분	내용
물적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중 상장사의 물적분할 추진건수는 19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6건 감소 (△45.7%)</li> </ul>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는 강화된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물적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검토 내용·주주보호방안 등의 항목을 누락 없이 공시</li> <li>• 다만 분할의 목적·효과 등 기재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였고, 구조개편계획변경 시에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 확인</li> </ul>
주식매수청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이 의결된 13사가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고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 행사</li> <li>• 1사는 주주의 대규모 청구권 행사로 분할을 철회하는 등 회사가 충분한 공시를 통해 주주와 소통할 유인 확대</li> <li>•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하여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 확인</li> </ul>
상장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대한 거래소 심사 강화</li> <li>• '23년 중 상장한 1사는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 자회사 상장시 다양한 주주보호방안 마련</li> </ul>

- ▶ 제도 현황 점검결과 확인된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자회사의 구조개편계획 변경시 정정공시, 주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분할 일정 수립 등을 기업에 유의토록 안내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3.5 (화) 금융감독원

##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3월 5일, 금융위원회는 기업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 ➢ 주요 내용

#### 1.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

- 합병에 관한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주주가 이를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비용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이사의 합병 반대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함
- 규정 개정안은 이사회 의견서를 당해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에 추가 공시토록 규정하여 합병 과정의 이사회 책임성 강화 및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2. 외부 평가제도 개선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시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외부평가가 가능토록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을 마련함
-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규정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위임한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였으며 합병 업무수행시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이해상충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함
- 규정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업무의 동시수행을 금지하고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참여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외부평가기관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환경을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3.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고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과 대조됨
- 개정안은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는 금번 개정안은 경제 금융단체, 외부평가기관,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 기관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기업합병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26 (월) 금융위원회

##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 지원 방안

- 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함

### 주요내용

#### 1.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상장기업이 이사회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공시 하도록 안내함
  -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관리의 최고결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
  - 기업 지배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기업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기업 스스로 평가해야 하며, ①현황진단 → ②목표설정 → ③계획수립 → ④이행평가·소통을 기재해야 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및 투자자 소통 노력 추가 기재하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4년 상반기) 확정 후, 하반기부터 자율공시
  -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강구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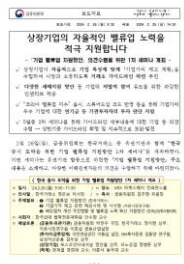
#### 2.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투자판단 지원

- 지속적 수익 창출 및 주주환원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목표
-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토록 지침화, 스투어드십 코드에 반영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 및 참여 독려를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투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함<sup>1)</sup>
    - 7개의 원칙 중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 스투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스투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참여 공표 후 원칙들을 이행해야 하며, 모든 세부원칙의 준수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시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Comply or Explain)

\* 스투어드십 코드에 대한 기관투자자 등의 이해를 돕고 실제 이행에 유용한 지침·사례 제공 목적으로 한국ESG 기준원이 '17년 6월 스투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발간

- 금융위원회는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1) 금융위원회,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024.3.14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26 (월) 금융감독원

##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 ▶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16건을 조치하였으며, 전년 대비 28건(31.8%)이 증가하였음
  - 정기공시 27건, 발행공시 14건, 주요사항공시 4건, 기타공시 71건으로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가 조치를 받은 바, 공시역량이 부족한 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가 다수이며, 과징금 중심으로 중조치가 부과(14건)되었고, 비상장법인의 경미한 위반의 다수 발생으로 경조치 비중(87.9%)이 높음
  - 이는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속 조치한 것에 기인함
- ▶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 1. 온라인소액증권 관련 공시 위반

회사	• 발행인은 발행조건, 재무상태 등을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무가 있으나, 공시전담 인력·조직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바, 사전 공시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
투자자	•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매년 말 게재된 결산자료를 통해 발행인의 경영상태 확인 필요

### 2. 외부 평가제도 개선

회사	•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 50인(공모 해당 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투자조합에 청약 권유 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명부 등을 조합에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
투자자	• 투자회사의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중요 투자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에 유의 필요

###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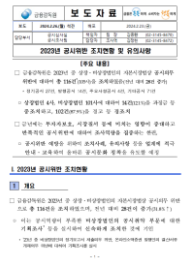
회사	• 전환사채 발행 시 사채인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투자판단시 주요사항임에도 주요사항보고서에 미기재 할 경우, 발행회사가 담보제공 없이 회사의 신용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어 충분히 공시할 필요
투자자	• 전환사채 발행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되고 있는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통해 담보 유무 등 확인 필요

### 4.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회사	• 비상장법인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 별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
투자자	•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미제출하는 경우 향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 있음에 유의 필요

-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조치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조치사례, 유의점 등을 안내·교육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20 (화)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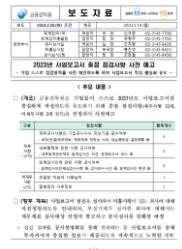
### 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23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4.4.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함
- ▶ 중점점검사항

구분	점검사항
재무사항 (1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공시사항의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li> <li>- ① 요약(연결)재무정보, ② 재무제표 제작성 사유 등, ③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④ 재고자산 현황, ⑤ 수주계약 현황</li> </ul> </li> <li>•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제도가안정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li> <li>-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li> </ul> </li> <li>•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의견,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 상 중요 정보가 사업보고서에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li> <li>- ①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② 감사보수 및 시간 등, ③ 내부감사기구 감사인 간 논의내용, ④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⑤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li> </ul> </li> </ul>
비재무사항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된자금의사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금융 자금(주식,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임</li> <li>- ① 공·사모 자금 사용내역, ②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사유, ③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내용 점검</li> </ul> </li> <li>• 합병등의사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스펙을 통한 상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합병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은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임</li> <li>- ① 스펙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② 실제치의 차이, ③ 차이발생원인 등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실적 사후정보를 점검</li> </ul> </li> </ul>

- ▶ 금융감독원은 올해 4~5월 중 '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5~6월 중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 자진정정토록 안내하되,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16 (금) 한국거래소

## '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사전 예고

- ▶ 2월 16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법인의 '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함
  - '20년 이후 보고서 점검결과 공시오류가 빈번한 사항, 금융당국의 적극 추진정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최근 개정사항을 위주로 중점점검사항을 선정하고 점검할 예정임
- ▶ 중점점검사항은 핵심지표 8개, 세부원칙 7개 등 총 15개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세부원칙 관련사항은 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내용 충실도) 준수에 대한 판단근거, 미준수시 그 사유와 향후계획 등을 충분히 기재하였는지(설명 충실도) 면밀하게 살필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세부원칙 관련항목의 점검내용
배당예측가능성 제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 개정 및 실제 현금배당시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관련 기재 여부</li> <li>•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유·향후계획(이하 사유 등)</li> </ul>
소액주주 등과의 소통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현황 뿐 아니라 임원 참석여부 등 적극적인 소통노력 기재 여부</li> <li>• 소액주주 등과의 구체적인 소통내용 및 회사측 피드백 기재 여부</li> <li>• 소액주주 등과의 소통 부족 사유 등 기재여부</li> </ul>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자본조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채권 등 발행목적, 규모, 전환 조건 refixing 등 기재 여부</li> <li>•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기재 여부</li> </ul>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정책의 명문화 여부, 그 세부 내용 및 실제 운영현황 기재 여부</li> </ul>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가치 훼손 등 판단기준, 판단 주체 및 절차 등 명문화된 정책 유무 및 세부내용 기재 여부</li> <li>•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임원선임 현황 및 해당 임원이 기업가치 훼손 등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기재 여부</li> </ul>
임원보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이사의 성과평과와 연계된 보수정책의 수립여부 및 주요 내용,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 및 접근방법의 기재 여부</li> <li>•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세부내용, 남용방지대책 기재 여부</li> <li>• 성과평과와 연계된 보수정책이 없는 경우 사유 등 기재 여부</li> </ul>
내부감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감사부서(지원조직) 설치 현황, 독립성 확보 관련 기재 여부</li> </ul>

- ▶ 보고서 제출 마감('24.5.31) 이후 신속 점검하여 올해 8월까지 정정공시 등 사후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중점점검사항별 작성기준 등을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회계투명성

- 계열사간 합병 투명성·공정성 확보...“이사회 공시·외부기관 평가” [한국경제]
- 내달부터 4월까지 노조 회계 공시...“투명성 ↑ 세액공제 혜택도” [머니투데이]
-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교육 실시...“거래소 운영 투명성 제고” [디지털데일리]
- “정책자금 투명사용 사전 검증”...중진공, 새 시스템 도입 [뉴시스]
- 동원산업, 투명한 공시 정보 인정받아 ‘2023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소셜밸류]



## 부정행위방지

- “상장사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증선위, 검찰 고발 조치 [뉴시스]
- 준법감시 인력 늘려도 금융사고 줄지 않았다 [헤럴드경제]
-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KBS 뉴스]
- 금감원 “은행 가상계좌 취급 실태 조사중...내부통제 강화할 것” [연합인포맥스]



## 규제 동향

- 금감원, 은행권 잠재 부실 대응 강화...자본확충 지배구조 개선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 “자산운용사, 주총 의결권 행사 충실해야...미흡할 시 사례 공개” [뉴스1]
- 당국 제동에 물적분할 46% 급감...금감원 내달 공시 추가 개정 [서울경제]
- 금융당국, 기업 합병시 ‘이사회 의견서’ 의무 공시 [아주경제]
- 가치 높은 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조선일보]
-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16건...전년 대비 28건 증가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발표 [이코노믹리뷰]
- 금감원 ‘증권·운용사 연계형 불법행위’ 올해 집중점검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장 “공매도 전산화 방안 이르면 내달 발표” [연합뉴스 TV]



## M&A

- “주총시즌 끝나면 RFP 쏟아진다”...대기업 출발 신호 기다리는 M&A 시장 [인베스트 조선]
- 게임사에 부는 ‘M&A 인재 영입’ 열풍 [서울경제]
- 유통 빅4 ‘M&A 옷돈’ 부메랑 됐다 [한국경제]
- M&A 한파 끝났나...“지난해보다 50% 증가” [SBS Biz]
- 지난해 국내기업 M&A 55조원...대기업 건수 1위 SK [연합뉴스TV]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여파...지난해 배터리 분야 M&A 활발 [경향신문]
- 최대실적 행진, 몸값 높아진 보험사...M&A 큰장 열린다 [머니투데이]
- 글로벌 고금리에 M&A시장 ‘뚝’...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인수·합병 73% 증가 [데일리안]



#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 가족·승계 중심 한국기업 특성 반영해 지배구조 평가 개선 [한국경제]
- 삼성전자, 국내 200대 기업 중 'ESG 종합평가' 1위 [IT 조선]
- 이복현 "주주환원율 29% 불과...글로벌 기준 지배구조 정착에 노력" [글로벌경제신문]
- 英 헤지펀드 "韓 지배구조 개혁 없인 일본식 밸류업 효과 없어" [연합뉴스]
- 하나금융, 이사회 전면 개편...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한걸음 [뉴스1]
- 장인화의 포스코 그룹 첫 발은... '전문성 중용+지배구조 개혁' [뉴스핌]
- 카카오뱅크, MSCI ESG 평가서 'AA' 획득... 두 단계 등급 상향 [이코노미스트]
- 주총 앞둔 한국엔컴퍼니, 투자자 설명회서 '지배구조 개선' 약속 [뉴스웨이]
- 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확대 관전 포인트... 주총 시즌 맞은 금융지주들 고심 [데일리한국]
- 효성그룹 형제경영 체제로 지배구조 재편 [중소기업신문]
- 현대글로벌비스·기아, 최현만 전 회장 등 IB·PE 출신 사외이사 영입 "지배구조 개편 포석" [인베스트 조선]



## 이사회·감사위원회

- 거수기 오명 사외이사 물갈이 금융사 지배구조 투명성 높인다 [매일경제]
- 주총 시즌 앞둔 금융지주, 女사외이사 모시기 '혈안' [글로벌경제신문]
- 소액주주 주주제안에... DB 하이텍, 이사회 '정원' 설정한다 [연합인포맥스]
- 풀무원, 이사회 중심 선진지배구조 체제 확립 [스마트경제]
- 국내 기업 이사회 여성 비중 8.8%..여성 근로자의 3분의 1 [MBC 뉴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 딜로이트 안진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매년 성장·양호 추세" [이투데이]
- "조직의 핵심은 사람..이사회, 인재 관련 안건에 더 집중해야" [조세일보]
- "은행 생성형 AI 도입하려면"...거버넌스 수립에 초점 맞춰야 [한국금융신문]
-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 출범 [한국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WWD 코리아와 지속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 위해 '맞손' [이투데이]
-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조세일보]
- 韓소비자 38% "전기차 늘어도 내연기관차 선호" [동아일보]
- 딜로이트 "기업별 맞춤 데이터 쌓아라, 마케팅 효과 극대화" [IT 조선]

# IV. 주요 행사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5호 발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지난 2월 28일,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5호(계간지)를 발간함
- 전문가 기고 섹션은 최근 6년간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재무실적과 시가총액의 추세분석을 다룬 김한석 센터장의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등과의 연관성', 박재환 중앙대 교수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장정애 아주대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사의 책무' 를 수록함
  - 'CCG 아젠다' 섹션은 최근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가 연속 발생함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고려사항'을 주제로 내부통제가 조직내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핵심이 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개선'을 강조함
  - '데이터 포인트' 섹션은 '2022-2023년 금융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을 다뤘으며 김한석 센터장은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한 개별 사외이사의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공시활동이 권고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사회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일반 조회인도 활동내용을 충분히 파악토록 하며, 회사는 결과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활동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함

다운로드



카드뉴스

QR 코드



구분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5호 목차
I. 전문가 기고	①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등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창간호에 이은 제2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②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③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사의 책무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정애 교수
II. CCG 아젠다	①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전제조건과 감사위원회 감독 고려사항 ②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이사회 인재관리에 관한 사고 전환
III. 데이터 포인트	① 2022년-2023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
IV. 주요 규제 동향	① '23년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동향 ② '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V. FAQ	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 재결의

# IV. 주요 행사

## [YouTub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를 소개합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기업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14년 설립

이사회·감사위원회 네트워크 구축

주요 고객사 기업 지배기구와 Network 형성 & Relationship 강화

Practice Team 지원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지원  
ESG 중 G(거버넌스) 전략과 연계

**주요 활동**

정기 발간물      세미나·웨비나

찾아가는 세미나      대외 자문

**영상보기**

**QR 코드**

**발간물 구독**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구분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14년 회계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설립되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지원, ESG 중 거버넌스 전략과 연계하는 등 회계법인 내에서 실무 팀 지원도 수행함</li> <li>센터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사회·감사위원회를 위한 정기 발간물, 세미나/웨비나, 찾아가는 세미나, 대외자문 제공이 있음</li> <li>정기 발간물로는 기업지배기구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이사회·감사위원회 공시데이터 기반 현황분석 및 최신동향을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월간 『뉴스레터』와 분기별 『Brief』, 글로벌 전문가의 통찰을 반영한 ‘이사회·감사위원회 실무 가이드’, 딜로이트 글로벌의 인사이트가 담긴 ‘국문 번역보고서’가 있으며 매월 ‘카드뉴스’ 제공</li> <li>기업지배구조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 대상 거버넌스 부분의 보고서 작성 지원 서비스 운영</li> <li>회사의 기 수립 평가기준, 방법, 절차를 준용하고 딜로이트 글로벌 자료를 참고하여 이사회, 위원회, 개별 사외이사 평가 서비스 운영</li> <li>센터의 다양한 발간물과 세미나 자료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발간물 구독 신청을 통해 주요발간 소식 수신 가능</li> </ul>

## IV. 주요 행사

###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 [웨비나] 2024 감사위원회 실무 보고서: 감사위원회의 공통된 생각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4월 11일 (목) 오전 02:00 - 03: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렌 골즈(Karen Golz), Analog Devices Inc, Aspen Technology Inc, Irobot Corporation, Osteon Holdings/Exactech 이사</li> <li>• 크리스타 파슨스(Krista Parsons), A&amp;A 거버넌스 서비스 및 감사위원회 프로그램 리더,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전무</li> <li>• 바네사 테이텔바움(Vanessa Teitelbaum), Center for Audit Quality 상무</li> </ul>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딜로이트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Center for Audit Quality(CAQ)가 공동 작성한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제3판에 대한 토론임</li> <li>•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와 협업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위원회의 우선순위, 직면과제, 기회는 물론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에 관한 선도적인 사례에 대해 공유 예정</li> </ul>

신청하기

QR 코드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 [웨비나] 이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6월 6일 (목)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의장 및 임원 패널</li> </ul>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는 기업이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가장 효과적인 이사회는 직원, 고객, 더 넓은 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것임</li> <li>• 이사회는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할 예정임</li> <li>• 선도적인 이사회가 사회전반에서 이사회 역할에 어떻게 재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임</li> </ul>

신청하기

QR 코드



##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온라인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 동영상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ICFR Regulation (상/하)</li> <li>2. ICFR 감사방법론</li> <li>3. 위험평가</li> <li>4. 범위선정</li> <li>5. 통제활동 (상/하)</li> <li>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li> <li>7. 운영평가 (상/중/하)</li> <li>8. 모니터링 및 보고</li> <li>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li> <li>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li> <li>11. 자동통제 (상/하)</li> <li>12. Post ICFR 운영방안</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li> <li>• 2023년 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li> </ul>

신청하기

QR 코드





##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온라인 교육]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li> <li>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li> <li>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li> <li>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li> <li>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li> <li>6. 요약</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li> <li>•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li> </ul>

동영상 보기

QR 코드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 파트너



####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 자문교수단



####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